

##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정주영<sup>1)</sup>

### 요약

본 연구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SPSS18.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남편의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활발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정도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Bootstrapping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남편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변인이 두변인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남편의 양육참여,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 I. 서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학력 신장과 더불어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안정해지는 고용현실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맞벌이를 선택하는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취업모가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편이다(Abidin, 1990).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돕고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전일제 보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취업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김리진·윤종희, 2000). 특히 영아기 자녀 양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보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아 취업모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부담감과 죄책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손수민, 2012).

일하는 여성은 양육, 결혼생활, 사회활동 등에서 여러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므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인 자신 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아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Maslow(1968)는 기본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연계점으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아존중감을 내적, 외적으로 구별하였다. 외적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으로, 명성, 존경, 지위, 평판, 위신, 사회적인 성공에 기초를 두고, 내적 자아존중감은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중감이다.

또한 Branden(1990)은 자아존중감을 우리 인생에서 필수적이며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으로서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Bandura, 1997).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문제 상황을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서주현·김진경, 2010; 송연숙·김영주, 2008). 김현미·도현심(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 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과 부담감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 부담, 개인 생활의 제한, 신체적 피로감 등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복지 및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동

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희경·조복희, 1999; 곽금주·김수정, 2004).

특히 어머니의 장기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여 결국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불안, 위축된 정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김숙령 외, 2012). 이러한 의미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강하면 어려운 양육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행동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 및 태도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아동에게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남편이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지고,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허보윤·한경자, 2009),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영아 양육행동(생물학적 돌봄, 영아놀이 참여 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영유아 돌봄의 정도에 따라서도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수연, 2010; 이지원, 2008). 즉, 남편이 영유아 돌봄에 많이 참여할수록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배우자와 공유하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등 적극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다(허경옥, 1994).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어머니가 갖는 양육스트레스도 덜어줄 수 있다. 장재홍·김태성(2002)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온정성과 반응성의 양육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현주 외(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에 대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방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의 지지와 지원을 받은 어머니는 양육에서 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다(안영희 외, 2008; 이정순, 2004).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우영 외, 1998; 전영자, 1996).

부부갈등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 특성을 지닌 부부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부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관계 자체를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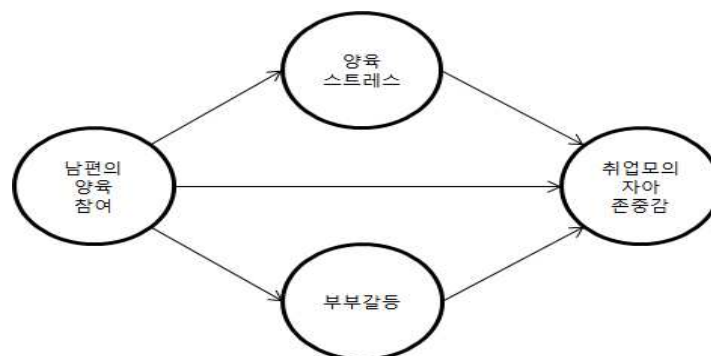
너뜨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감정은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mmings et al, 2001). 김기현·조복희(2000)의 연구에서도 모가 인지하는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우영·최진아·이숙(199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 중 남편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등에 각각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도출되었으나, 이들 요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은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연구하였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핵가족화로 인해 친인척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취업모의 양육부담은 부부갈등과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질 것이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발현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과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의 참여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영향관계를 보이는지를 구조적으로 밝히고자 다음의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남편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에 부정(-)영향을,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는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인식 정도는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년) 데이터 중에서 조사 시점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 총 554명을 선별하였다. 이들 취업모는 임금 근로자 445명, 비임금 근로자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1>은 연령, 최종학력, 직업종류, 종사상 지위, 근로유형, 아동성별, 아동월령, 현 결혼상태 유지 기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30세~32세(34.0%)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43.9%),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0.8%), 정규직(66.6%), 임금근로자 집단(80.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현 결혼상태 유지기간은 만 4년~7년 사이(45.8%)가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 특성           | 구분           | 구분    |        |
|--------------|--------------|-------|--------|
|              |              | 빈도(명) | 퍼센트(%) |
| 연령           | 30세 미만       | 68    | 12.3   |
|              | 30세~32세      | 187   | 34.0   |
|              | 33세~35세      | 166   | 30.1   |
|              | 36세~38세      | 91    | 16.5   |
|              | 39세 이상       | 39    | 7.1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16   | 22.5   |
|              | 전문대 졸업       | 129   | 25.1   |
|              | 4년제 대학 졸업    | 226   | 43.9   |
|              | 대학원 이상(석·박사) | 44    | 8.5    |
| 직업종류         | 관리자          | 15    | 2.7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69   | 30.8   |
|              | 사무 종사자       | 138   | 25.2   |
|              | 서비스 종사자      | 19    | 3.5    |
|              | 판매 종사자       | 42    | 7.7    |
|              | 기타           | 165   | 3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369   | 66.6   |
|              | 비정규직         | 75    | 13.7   |
|              | 고용주/자영업자     | 79    | 14.3   |
|              | 무급가족종사자      | 24    | 4.3    |
|              | 기타           | 7     | 1.1    |
| 근로유형         | 임금 근로자       | 445   | 80.3   |
|              | 비임금 근로자      | 103   | 18.6   |
| 현 결혼상태 유지 기간 | 만 3년 이하      | 183   | 22.3   |
|              | 만 4년~7년      | 251   | 45.8   |
|              | 만 8년~11년     | 88    | 16.1   |
|              | 만 12년 이상     | 26    | 4.7    |
|              | 합계           | 554   | 100.0  |

##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조사해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의 제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Rosenberg(1986)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한 총 10개 문항인 자아존중감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는 총 4개 문항인 남편의 양육참여이고, 매개변수는 총 11개 문항인 양육스트레스와 총 8개 문항인 부부갈등으로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질문과 긍정적인 질문이 혼용되어 있는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의 4개 문항(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을 역코딩하여 재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  $\alpha$ 값은 .876,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  $\alpha$ 값은 .858, 부부갈등의 cronbach  $\alpha$ 값은 .911, 남편의 양육참여의 cronbach  $\alpha$ 값은 .816으로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 값을 보이고 있다.

<표 2> 문항과 신뢰도

| 변수                    | 문항   | 신뢰도  |
|-----------------------|--|------|
| 자아<br>존중감             |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876 |
|                       |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
|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
|                       |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      |
|                       |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
|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
|                       |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      |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
|                       |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
|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      |
| 양육<br>스트레스            |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858 |
|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
|                       |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
|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
|                       |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
|                       |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
|                       |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

(표 2 계속)

| 변수                                    | 문항  | 신뢰도  |
|---------------------------------------|---|------|
|                                       |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
|                                       |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
|                                       |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
|                                       |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부부갈등                                  |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 .911 |
|                                       |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
|                                       |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
|                                       |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      |
|                                       |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      |
|                                       |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      |
|                                       |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      |
|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   |      |
| 남편의 양육참여                              |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 .816 |
|                                       |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
|                                       |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
|                                       |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      |

### 3. 기술통계

다음의 <표 3>은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값을 제시한 것이다. 이 통계량은 자료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변수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연속변수이어야 한다. 이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지표가 0값을 가질 때 정확하게 정상분포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분포는 불가능하다. Curran, West & Finch(1996)는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으면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어 최대 우도법을 통한 추정에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인 <표 3>의 값은 모두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 변수             | 문항   | N   | 평균   | 표준편차  | 첨도    | 왜도    |
|----------------|--|-----|------|-------|-------|-------|
| 자아<br>존중감      |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542 | 3.20 | .529  | .011  | .166  |
|                |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542 | 3.03 | .578  | .220  | -.058 |
|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542 | 1.76 | .601  | .249  | .310  |
|                |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 542 | 3.24 | .521  | 1.110 | -.015 |
|                |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541 | 1.97 | .630  | -.175 | .110  |
|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542 | 3.07 | .558  | .439  | -.039 |
|                |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 542 | 2.95 | .556  | .443  | -.086 |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541 | 2.81 | .683  | .601  | -.543 |
|                |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541 | 1.70 | .598  | -.324 | .275  |
|                |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하고 생각한다.                                    | 541 | 1.64 | .636  | .037  | .601  |
| 양육<br>스트<br>레스 |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541 | 2.61 | .925  | -.514 | .235  |
|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541 | 2.41 | .851  | -.258 | .306  |
|                |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541 | 2.49 | .928  | -.411 | .358  |
|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541 | 2.26 | .906  | .105  | .466  |
|                |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539 | 2.31 | .904  | -.051 | .533  |
|                |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541 | 3.07 | .988  | -.661 | -.257 |
|                |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541 | 2.22 | .978  | .148  | .685  |
|                |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541 | 3.53 | 1.081 | -.423 | -.499 |
|                |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540 | 3.06 | 1.032 | -.834 | -.091 |
|                |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541 | 3.13 | .881  | -.227 | -.101 |
| 부부<br>갈등       |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539 | 2.53 | .931  | -.210 | .454  |
|                |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 527 | 1.98 | .927  | .067  | .771  |
|                |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534 | 2.05 | .946  | .655  | .924  |



(표 3 계속)

| 변수        | 문항  | N   | 평균   | 표준편차  | 척도    | 왜도    |
|-----------|---|-----|------|-------|-------|-------|
|           |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536 | 2.23 | .999  | -.080 | .638  |
|           |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 535 | 2.05 | .968  | .440  | .889  |
|           |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 535 | 2.03 | .969  | .681  | .963  |
|           |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 531 | 1.91 | .862  | 1.417 | 1.009 |
|           |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 535 | 2.19 | .996  | .076  | .693  |
|           |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 535 | 2.57 | 1.084 | -.682 | .320  |
| 남편의 양육 참여 |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 537 | 3.62 | 1.136 | -.875 | -.381 |
|           |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537 | 3.82 | .978  | -.306 | -.548 |
|           |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537 | 3.87 | 1.083 | -.341 | -.708 |
|           |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 536 | 3.85 | 1.002 | -.531 | -.506 |

#### 4. 분석방법

첫째, 남편의 양육 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은 다수의 회귀모형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찰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로분석과 달리,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까지도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통계방법이다(성태제, 2008).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또는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였다. 2단계 분석법은 측정모형을 통하여 단일차원성, 신뢰성, 타당성을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모형의 재설정 후 이 결과를 경로분석에 도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의 장점 중 하나는 구조모형이 적합한지 검토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EM 방식을 사용하여 결측 자료를 처리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한 소벨 검증방법은 두 경로의 곱으로 이루어진 매개효과 계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회귀계수 곱으로 이루어진 매개효과계수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대칭적인 분포를 갖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증력을 감소시켜 제2종 오류를 범하기 쉽다(홍세희, 2011).

이에 반해 부트스트래핑은 분석표본의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일정한 수만큼 반복추출한 후 각 표본들에서 얻어낸 매개효과 회귀계수들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래핑의 검증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소벨 검증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복 추정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0번의 반복 추정을 설정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i^2$  및 CFI, RMSEA, TLI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별 적합기준은 RMSEA .06 이하(Hu & Bentler, 1999)를, TLI는 .9 이상(Tucker & Lewis, 1973)을, CFI 역시 .9이상(Bentler, 1990)을 기준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치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가. 측정모형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 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따라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 추정을 통해 타당도를,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207.0$ ,  $df=481$ ,  $p=.000$ ,  $TLI=.907$ ,  $CFI=.916$  그리고  $RMSEA=.054$ 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에 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표를 보면,  $p$ 값도 모두 .001 이하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모든 관찰변수가 본래 의도한 잠재변수에 잘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 측정변수   | 자아 존중감             | 양육 스트레스            | 부부갈등 | 남편의 육아참여 |
|--|--------------------|--------------------|------|----------|
|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715***<br>(.043)  |                    |      |          |
|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766***<br>(.052)  |                    |      |          |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역코딩)                            | .935***<br>(.058)  |                    |      |          |
|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 .537***<br>(.051)  |                    |      |          |
|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역코딩)                         | 1.041***<br>(.059) |                    |      |          |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769***<br>(.048)  |                    |      |          |
|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 .800***<br>(.052)  |                    |      |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941***<br>(.065)  |                    |      |          |
|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역코딩)                                   | .947***<br>(.033)  |                    |      |          |
|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하고 생각한다.(역코딩)                               | 1                  |                    |      |          |
|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 1                  |      |          |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 1.007***<br>(.044) |      |          |
|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 1.055***<br>(.074) |      |          |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 .998***<br>(.071)  |      |          |

(표 4 계속)

| 측정변수  | 자아 존중감 | 양육 스트레스            | 부부갈등               | 남편의 육아참여 |
|---|--------|--------------------|--------------------|----------|
|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 .902***<br>(.070)  |                    |          |
|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 .863***<br>(.071)  |                    |          |
|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 1.070***<br>(.071) |                    |          |
|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 .575***<br>(.083)  |                    |          |
|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 1.041***<br>(.081) |                    |          |
|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 .889***<br>(.077)  |                    |          |
|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865***<br>(.072)  |                    |          |
|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        |                    | .831***<br>(.056)  |          |
|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                    | 1.066***<br>(.061) |          |
|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                    | 1.059***<br>(.064) |          |
|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        |                    | 1.061***<br>(.058) |          |
|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        |                    | 1.150***<br>(.061) |          |
|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        |                    | .862***<br>(.058)  |          |
|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        |                    | 1.107***<br>(.065) |          |
|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        |                    | 1                  |          |

(표 4 계속)

| 측정변수                                      | 자아 존중감 | 양육 스트레스 | 부부갈등 | 남편의 육아참여          |
|---|--------|---------|------|-------------------|
|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        |         |      | .802***<br>(.051) |
|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         |      | .900***<br>(.046) |
|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         |      | .928***<br>(.045) |
|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놓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        |         |      | 1                 |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 나. 구조모형의 추정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01.810$ ,  $df=481$ ,  $p=.000$ , TLI=.907, CFI=.913, RMSEA=.054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용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수 각각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 분석결과

| 경로                | b (S.E.)        | $\beta$ |
|-------------------|-----------------|---------|
| 양육스트레스 ← 남편의 양육참여 | -.211*** (.036) | -.299   |
| 부부갈등 ← 남편의 양육참여   | -.385*** (.042) | -.450   |
| 자아존중감 ← 남편의 양육참여  | .044 (.027)     | .071    |
| 자아존중감 ← 양육스트레스    | -.346*** (.041) | -.435   |
| 자아존중감 ← 부부갈등      | -.196*** (.035) | -.298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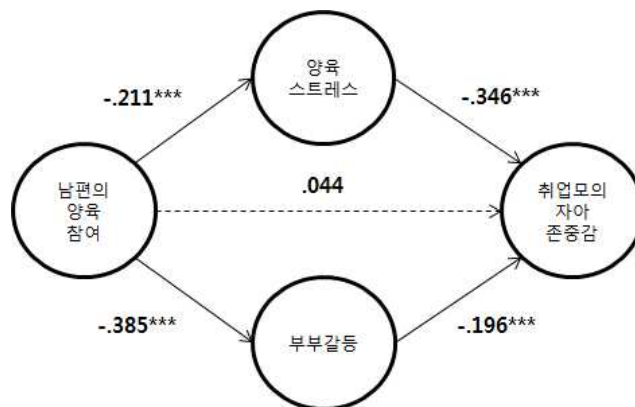
표준화 경로계수( $\beta$ )는 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 값을 통해 잠재변수 간 경로의 상대적 효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가설검정 결과를 경로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미한 경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경로(-.299)와 남성의 양육참여에서 부부갈등으로의 경로(-.450)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성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부갈등도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435)와 부부갈등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29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부부갈등이 줄어들수록 역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남성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간(.07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남성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도 직접적으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이들 변인이 남성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 2. 매개효과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프로그램인 AMOS에서는 다중매개의 경우 매개변수 전체에 대한 간접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면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홍세희, 2011). 즉 개별매개에 대해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한 후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개별 매개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

고자 한다.

개별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형모형을 설정하였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변인 사이에 팬텀변수1을,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변인 사이에는 팬텀변수2를 삽입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변인의 오차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팬텀변수의 오차를 d1, d2로 설정한 후 앞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d1에서 팬텀변수1로의 경로는 -.346으로, d2에서 팬텀변수2로의 경로는 -.196으로 고정하였고, 각 팬텀변수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간 경로는 1로 고정하였다.

### 가. 전체 매개효과 검증결과

먼저 1000번의 반복측정에서 얻어진 본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매개효과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Bootstrap percentile의 값을 살펴보면 .002에서 .086의 범위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편의 양육참여에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6> 전체 매개효과 검정결과

| Effect   | Estimate | SE   | 95% Confidence Interval |                      |                | Bootstrap |      |
|----------|----------|------|-------------------------|----------------------|----------------|-----------|------|
|          |          |      | Standard normal         | Bootstrap percentile | Bias-corrected | M         | SD   |
| 남편의 양육참여 | .044     | 0.27 | (-.009,.095)            | (.002,.086)          | (-.003,.081)   | .044      | 0.26 |

주: Standard normal=Estimate±2×SE.

### 나. 개별 매개효과 검증결과

앞선 전체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양육참여 변인의 standard normal 값은 bootstrapping 시행 전 estimate 값과 SE값으로 판단되는데, -.009에서 .095의 범위로 0을 포함하고 있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ootstrapping 후의 값인 bootstrap percentile의 값은 .002에서 .086의 범위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각각 어떠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다음

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편의 양육참여 변인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간 경로의 평균 매개 효과는 .081이고, 95% 신뢰구간에서 .056에서 .108의 범위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 변인에서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 변인 간 경로의 평균 매개 효과는 .085이고, 95% 신뢰구간에서 .059에서 .109의 범위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양육스트레스보다 부부갈등의 매개 효과가 근소한 차이로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각각의 변인이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다는 의미이다.

〈표 7〉 개별 매개효과 검증결과

| Effect                                | Estimate | SE   | 95% Confidence Interval |                      |                | Bootstrap |      |
|---------------------------------------|----------|------|-------------------------|----------------------|----------------|-----------|------|
|                                       |          |      | Standard normal         | Bootstrap percentile | Bias-corrected | M         | SD   |
| 양육스트레스<br>(팬텀변수1)<br>←<br>남편의<br>양육참여 | .080     | .012 | (.054,.110)             | (.056,.108)          | (.058,.112)    | .081      | .016 |
| 부부갈등<br>(팬텀변수2)<br>←<br>남편의<br>양육참여   | .086     | .015 | (.057,.113)             | (.059,.109)          | (.062,.116)    | .085      | .015 |

주: Standard normal=Estimate±2×SE.

#### IV. 결론

본 연구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양육참여율이 높을수록 취업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줄어들어 결국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취업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정도가 높으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모됨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부모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김기현, 2000).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 이는 영유아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정도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자세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각각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변인이 두변인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취업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나 부부갈등은 감소할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축적과정을 거쳐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편의 양육참여는 일하는 아내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은 아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남성들에게는 행복 추구권과 부모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김태홍, 2008; 장희정·이기숙, 2008). 즉, 일과 가정이 삶에서 지나치게 한 영역으로 치우쳐져서 다른 한쪽 영역이 깨지는 현상을 막고 일과 가정이 병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취업모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자아인식이 바탕이 된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위해 남편의 양육 참여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를 위해 남편이 현실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각종 육아관련 제도를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국가차원에서 보급·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대상을 취업모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차이를 다집단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편이 인식하는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여 남편과 아내의 인식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곽금주·김수정(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 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수연(2010). 아버지의 영아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4, 119-153.
- 김숙령·최항준·정경화·이윤이(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류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서주현·김진경(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22-344.
- 성태제(2008).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안영희·김연화·한세영(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1-14.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임현주·최항준·최선녀(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 양육특성에 미치는 변인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83-106.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장재홍·김태성(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 양육 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장희정·이기숙(2008). 가족 친화제도에 대한 기혼 남성의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 13(4), 103-121.
- 전영자(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1, 159-177.
-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허보운·한경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홍세희(2011).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고급 연구방법론 워크샵.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for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122-12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anden, N. (1990). *What is self-esteem*.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25.
- Cummings,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Curran, Patrick J., West, Stephen G., & Finch, John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Hu, L., & Bentler, P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논문접수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6월 12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교신저자: 정주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jjy5968@kicce.re.kr

## Abstract

### The Systematic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Working Mother's Self-esteem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Jung Jo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asual model between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working mother's self-esteem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The data from the 3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to working mother's self-esteem. But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orking mother's self-esteem. Second, mediating effects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between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working mother's self-esteem.

Key words: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working mo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SEM.